BARUN EDUCATION

文 識 性 · L I T E R A C Y

문식성(文識性) 독해력 훈련 워크북

2021년도
언어논리영역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 기출 기반
문식성(文識性) 독해력 훈련 · 확장판 v5.6

5급공채 2021 · 심화선별권 · 통합본

수록 10개 지문 · 10문항 · 평이하거나 짧은 지문을 걸러낸 심화 선별본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010-9968-1387

차례

각 회차는 훈련 준비 → 5단계 훈련 → 읽기 일지·해설의 순서로 구성됩니다.

01 이질은 왜 늘었다가 줄었는가 — 범람원 개간과 생태 변화 [문 3]
과학·생태사 · 인과 사슬

02 안전 제일의 원칙 — 농민은 왜 더 큰 이익을 마다했는가 [문 4]
사회·경제인류학 · 사례로 입증하기

03 공공 미술의 세 패러다임과 두 갈래의 재분류 [문 5]
인문·예술론 · 분류와 재분류

04 마이야르 반응 — 맛과 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문 6]
과학·화학 · 조건과 결과

05 발언과 침묵 — 조직 구성원은 왜 입을 다무는가 [문 9]
사회·조직행동 · 유형 분류

06 조선의 진휼 — 누구에게 곡식을 줄 것인가 [문 21]
인문·역사제도 · 다단계 분류

07 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 — 소액주주는 이사를 뽑을 수 있는가 [문 23]
사회·회사법 · 제도 비교와 계산

08 ILO 노동기준 협약의 세 갈래와 우리나라의 비준 현황 [문 24]
사회·국제법 · 범주와 대조

09 동의와 기만 — 의사는 환자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문 25]
인문·의료윤리 · 원리의 충돌과 해소

10 푄 현상 — 산을 넘은 바람은 왜 뜨겁고 건조해지는가 [문 27]
과학·지구과학 · 과정 추론

워크북 규격에 따라 제외한 지문

- 난도·분량 기준 제외 — 문 1(도화서 화원), 문 2(승정원일기), 문 22(젊은이의 호칭) : 서술이 평이하고 정보가 나열식이어서 훈련 효과가 낮아 이번 심화 선별본에서 제외
- 빈칸·배열·어법 수정형(문 7·8·15·26·32·33), 밑줄 판단·평가형(문 12·17·38) : 지문 전체 독해가 아닌 국소 판단 문항이므로 규격상 제외
- 논리 퀴즈·형식 추론형(문 13·14·34·35·36) : 독해가 아닌 형식 논리 문항이므로 제외
- 〈보기〉 ㄱㄴㄷ 논증평가·강화형(문 10·11·18·28·31·37), 대화·논쟁·분석형(문 16·20·29·30) : 별권(평가·복합권) 대상
- 공유 지문 세트(문 19, 문 39·40) : 한 회차 1지문 원칙에 맞지 않아 제외

※ 수록 문항의 정답은 지문 대조로 검증했으나, 학습 전 **공식 정답표**와 한 번 더 대조하시기를 권합니다.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1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이질은 왜 늘었다가 줄었는가 — 범람원 개간과 생태 변화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과학·생태사

설명형 · 인과 사슬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범람원 #수인성 병균 #이앙법

나의 예측 (한 문장)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15～16세기에 이질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장 주요한 질병이 되었다. 조선은 15세기부터 냇둑을 만들어 범람원(汎濫原)을 개간하기 시작하였고, 『농사직설』을 편찬하여 적극적으로 벼농사를 보급하였다. 이질은 이처럼 벼농사를 중시하여 냇가를 개간한 조선이 감당하여야 하는 숙명이었다. 벼농사를 짓는 논은 밭 위에 물을 가두어 농사를 짓는 농업 시설이었다. 새로 생긴 논 주변의 구릉에는 마을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사람들이 쏟아내는 오물이 도랑을 통해 논으로 흘러들었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중 수인성(水因性) 병균이 번성하였다. 그중 위산을 잘 견디는 시겔라균은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적은 양이라도 대장까지 곧바로 도달하였고, 어김없이 이질을 일으켰다. 이질은 15세기 초반 급증하기 시작하여 17세기 이후에는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생태환경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15～16세기 냇둑에 의한 농지 개간은 범람원을 논으로 바꾸었다. 장마나 강우에 의해 일시적으로 범람하여 발생하는 짧은 침수 기간을 제외하면 범람원은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벌판을 형성한다. 이곳은 홍수에 잘 견디는 나무로 구성된 숲이 발달하였던 곳이다. 한반도의 하천 변에 분포하는 넓은 범람원의 숲이 논으로 개발되면서 뜨거운 여름 동안 습지로 바뀌었고 건조한 환경에 적합한 미생물 생태계가 습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미생물 생태계로 바뀌었다. 수인성 세균인 병원성 살모넬라균과 시겔라균은 이러한 습지의 생태계에서 번성하여 장티푸스와 이질의 발병률을 크게 높였다. 그런데 17세기 이후 농지 개간의 중심축이 범람원 개간에서 산간 지역 개발로 이동하였다. 이는 수인성 전염병 발생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농법의 측면에서도 17세기 이후에는 남부지역의 벼농사에서 이모작과 이앙법이 확대되었고, 이는 마을에 인접한 논의 사용법을 변화시켰다. 특히 논에 물을 가둬두는 기간이 줄어서 이질 등 수인성 질병 발생의 감소를 가져왔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21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3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현상 제시 → 발생 기제 → 증가 원인 → 감소 원인**

현상 15~16세기 이질 급증 — 냇둑을 쌓아 _____ 을 개간하고 벼농사를 보급한 결과

▼

기제 마을의 오물이 논으로 유입 → 위산을 견디는 _____ 이 대장에 도달해 이질 발병

▼

증가 범람원의 숲이 논으로 바뀌며 건조한 생태계가 _____ 생태계로 전환 → 발병률 상승

▼

감소 17세기 이후 개간축이 산간으로 이동 + 이모작· _____ 확대로 물 가두는 기간 단축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숙명**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농사직설』을 통한 벼농사 보급 이전의 조선에는 수인성 병균에 의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② 15~16세기 조선의 하천에서 번성하던 시겔라균이 17세기 이후 감소하였다.

③ 17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논의 미생물 생태계가 변화되어 이질 감소에 기여하였다.

④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개간 대상 지역이 바뀌어 인구 밀집지역이 점차 하천 주변에서 산간 지역으로 바뀌었다.

⑤ 17세기 이후 조선 농법의 변화는 건조한 지역에도 농지를 개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질과 장티푸스 발병률을 낮추었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1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③ — 마지막 단락은 17세기 이후 이모작과 이앙법이 확대되면서 논에 물을 가둬두는 기간이 줄었고, 그것이 이질 등 수인성 질병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셋째 단락에서 논의 습지화가 미생물 생태계를 바꾸어 발병률을 높였다고 했으므로, 물을 가두는 기간이 줄면 그 생태계가 다시 바뀌어 이질이 줄었다는 이해는 글에서 확인된다. 오답: ①벼농사 보급 이전에 수인성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진술은 글에 없다. 글은 이질이 15세기에 급증했다고만 했다. ②시겔라균이 번성한 곳은 하천 자체가 아니라 논과 습지이며, 감소 여부도 균 자체가 아니라 발병률에 관한 서술이다. ④개간 대상 지역의 이동은 나오지만 인구 밀집 지역이 산간으로 옮겨 갔다는 서술은 없다. ⑤17세기 농법 변화의 효과는 물을 가두는 기간의 단축이지, 건조한 지역을 개간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이질의 급증과 범람원 개간(~"숙명이었다.") ② 논에서 병균이 번성하는 기제(~"일으켰다.") ③ 생태환경 변화로 인한 증가(~"높였다.") ④ 17세기 이후의 감소 원인(~"가져왔다.") **3~4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현상: (범람원) / 기제: (시겔라균) / 증가: (습한 환경에 적합한) / 감소: (이앙법)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숙명' = 벼농사를 택한 이상 피할 수 없이 따라온 대가. 채점 포인트: '어쩔 수 없이 함께 짊어진 결과'라는 뜻을 담았는가. 단순히 '운명'이라고만 쓰면 인과의 뉘앙스가 빠진다.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하나의 질병이 늘었다가 줄어드는 과정을 생태 변화라는 하나의 축으로 꿰어 읽는 회차입니다. 시기(15~16세기 / 17세기 이후)와 변화의 방향을 표로 정리하면서 읽는 것이 급소. 글에 없는 인구 이동이나 발견 여부를 슬쩍 끼워 넣은 선지를 걸러내세요.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2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안전 제일의 원칙 — 농민은 왜 더 큰 이익을 마다했는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사회·경제인류학

설명형 · 사례로 입증하기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안전 제일의 원칙 #분익제·정액제 #루손 지역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통제되지 않는 자연재해와 지배자의 요구에 시달리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전(前)자본주의 농업사회 농민들에게,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는 거의 없다. 정상적인 농민이라면 큰 벌이는 되지만 모험적인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실패를 피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악조건은 농민들에게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안전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향을 체득하도록 한다. 이러한 '안전 제일의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 농민들은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하는 종자의 다양화, 경작지의 분산화, 재배 기술 개선 등 생계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술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호혜성, 피지배층이 지배층에 기대하는 관대함, 그리고 토지의 공동체적 소유 및 공동 노동 등 절박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도 필요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주와 소작인 간의 소작제도 역시 흥미롭다. 소작인이 지주에게 납부하는 지대의 종류에는 수확량의 절반씩을 나누어 갖는 분익제와 일정액을 지대로 지불하는 정액제가 있다. 분익제에서는 수확이 없으면 소작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정액제에서는 벼 한 포기 자라지 않았어도 의무 수행을 요구한다.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흉년이 자주 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액제는 분익제에 비해 소작인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 방법이었지만 전자본주의 농업사회에서 보다 일반적인 방식은 분익제였다. 이러한 상황은 필리핀 정부가 벼 생산 분익농들을 정액 소작농으로 전환시키고자 시도한 루손 지역에서도 관찰되었다. 정부는 소작농들에게 분익제하에서 부담하던 평균 지대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액제 지대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체제에서 소작인은 대략적으로 이전 연평균 수입의 두 배, 새로운 종자를 채택할 경우는 그 이상의 수입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가 제시하는 기대 수입에서의 상당한 이득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은 정액제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 때문에 전환을 꺼렸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21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4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원리 제시 → 제도로 구체화 → 사례로 확인**

원리 전자본주의 농민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_____ 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

장치 종자 다양화·경작지 분산 등 기술적 장치 + 호혜성·공동 소유 등 _____ 장치

▼

제도 수확이 없으면 지대도 없는 _____ 가, 이윤이 더 클 수 있는 정액제보다 일반적이었다

▼

사례 루손 지역 농민은 수입이 두 배가 되리라는 기대에도 _____ 을 이유로 전환을 꺼렸다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안전 제일의 원칙**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안전 제일의 원칙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계산 논리에 부합한다.

② 전자본주의 농업사회 농민들은 모험적인 시도가 큰 벌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③ 안전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전자본주의 농업사회의 기술적 장치는, 사회적 장치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환경하에 발달했다.

④ 루손 지역의 농민들이 정액제로의 전환을 꺼렸던 것은 정액제를 택했을 때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이 분익제를 택했을 때보다 작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⑤ 어느 농가의 수확량이 이전 연도보다 두 배로 늘었을 경우, 이전 연도 수확량의 절반을 내기로 계약하는 정액제를 택하는 것이 분익제를 택하는 것보다 이윤이 크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2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⑤ — 분익제의 지대는 그해 수확량의 절반이다. 수확량이 이전 연도의 두 배가 되었다면 분익제에서 내야 할 지대는 '이전 연도 수확량 전부'에 해당한다. 반면 이전 연도 수확량의 절반을 고정액으로 내기로 한 정액제에서는 그 절반만 내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정액제를 택하는 편이 이윤이 크다. 둘째 단락의 '정액제는 분익제에 비해 소작인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 방법'이라는 진술과도 맞물린다. 오답: ①안전 제일의 원칙은 이윤 극대화 계산과 대비되는 성향으로 제시되었다. ②농민들은 모험적 시도가 '큰 벌이는 되지만' 실패를 피하려 한다고 했으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피한 것이다. ③기술적 장치와 사회적 장치는 나란히 필요한 것으로 열거되었을 뿐, 어느 쪽이 다른 쪽의 조건이라는 서술은 없다. ④루손 농민이 전환을 꺼린 이유는 정액제의 위험성이 분익제보다 '크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안전 제일의 원칙과 두 종류의 장치(~"필요로 한다.") ② 분익제와 정액제의 비교(~"분익제였다.") ③ 루손 지역의 실제 사례(~"꺼렸다.") **3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원리: (안전 추구) / 장치: (사회적) / 제도: (분익제) / 사례: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안전 제일의 원칙' = 더 큰 벌이보다 파멸을 부를 실패를 먼저 피하려는 삶의 태도. 채점 포인트: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최악의 회피'가 기준이라는 점을 담았는가.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숫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글에서 숫자로 따져야 하는 선지가 나오는 회차입니다. ⑤번처럼 조건이 걸린 선지는 직접 값을 넣어 계산해 보는 습관이 급소. '알면서도 택하지 않았다'와 '몰랐다'를 뒤바꾼 선지도 함께 훈련합니다.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3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공공 미술의 세 패러다임과 두 갈래의 재분류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인문·예술론

설명형 · 분류와 재분류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공공 미술 #패러다임 #사용가치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공공 미술'이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고 전시되는 작품으로서, 공중(公衆)을 위해 제작되고 공중에 의해 소유되는 미술품을 의미한다. 공공 미술의 역사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의 변천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 패러다임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공공 미술이 그에 해당한다. 이것은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볼 수 있었던 미술 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공중이 미술 작품을 접하기 쉽게 한 것이다. 두 번째는 '공공 공간으로서의 미술' 패러다임으로, 공공 미술 작품의 개별적인 미적 가치보다는 사용가치에 주목하고 공중이 공공 미술을 더 가깝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미술과 실용성 사이의 구분을 완화하려는 시도이다. 이에 따르면 미술 작품은 벤치나 테이블, 가로등, 맨홀 뚜껑을 대신하면서 공공장소에 완전히 동화된다. 세 번째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 패러다임은 사회적인 쟁점과 직접적 접점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통합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거리 미술, 게릴라극, 페이지 아트 등과 같은 비전통적 매체뿐만 아니라 회화, 조각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통 매체를 망라한 행동주의적이며 공동체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패러다임은 둘 다 공적인 공간에서 시각적인 만족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틀로 묶을 수 있다. 공적인 공간에서 공중의 미적 향유를 위해서 세워진 조형물이나 쾌적하고 심미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적 요소를 접목한 공공 편의 시설물은 모두 공중에게 시각적인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공공장소를 미화하는 미술'이라 부를 수 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은 사회 변화를 위한 공적 관심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공공 공간을 위한 미술이라기보다는 공공적 쟁점에 주목하는 미술이다. 이 미술은 해당 주제가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쟁점이 되는 특정한 공중 일부에게 집중한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미술 작업은 공중 모두에게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인 미적 만족을 제공하려는 활동과는 달리 '공적인 관심을 증진하는 미술'에 해당한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21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5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개념 정의 → 세 패러다임 → 두 범주로 재분류**

정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어 _____ 을 위해 제작되고 소유되는 미술품

▼

패러다임 1·2 공공장소 속의 미술(접근성) / 공공 공간으로서의 미술(미적 가치보다 _____)

▼

패러다임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 — 사회 정의와 공동체 통합을 추구하는 _____ 활동

▼

재분류 1·2는 시각적 만족을 앞세운 '공공장소를 미화하는 미술', 3은 ' _____ 하는 미술'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사용가치**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① 공공 공간으로서의 미술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회 정의와 공동체 통합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② 공공장소를 미화하는 미술은 공공 미술 작품의 미적 가치보다 사용가치에 주목하는 시도를 포함한다.

③ 공적인 관심을 증진하는 미술은 공중이 공유하는 문화 공간을 심미적으로 디자인하여 미술과 실용성을 통합하려는 활동이다.

④ 공공장소 속의 미술은 사회 변화를 위한 공적 관심의 증대를 목표로 공중 모두에게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 미적 만족을 제공한다.

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은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공중이 미술을 접할 수 있도록 작품이 존재하는 장소를 미술관에서 공공장소로 확대하는 활동이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3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② — 둘째 단락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패러다임을 묶어 '공공장소를 미화하는 미술'이라 부른다고 했다. 그런데 두 번째 패러다임인 '공공 공간으로서의 미술'은 개별적인 미적 가치보다 사용가치에 주목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공공장소를 미화하는 미술에는 사용가치에 주목하는 시도가 포함된다. 오답: ①사회 정의와 공동체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세 번째 패러다임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이다. ③미술과 실용성의 구분을 완화하려는 것은 두 번째 패러다임이며, '공적인 관심을 증진하는 미술'은 세 번째 패러다임을 가리킨다. ④사회 변화를 위한 공적 관심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세 번째 패러다임이고, 이것은 보편적 미적 만족을 제공하려는 활동과는 다르다고 명시되어 있다. ⑤작품이 존재하는 장소를 미술관에서 공공장소로 확대한 것은 첫 번째 패러다임이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정의와 세 패러다임의 소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두 범주로의 재분류(~"해당한다.") **2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정의: (공중) / 패러다임 1·2: (사용가치) / 패러다임 3: (행동주의적·공동체적) / 재분류: (공적인 관심을 증진)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사용가치' =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물건으로서 지니는 쓸모. 채점 포인트: '보는 값'이 아니라 '쓰는 값'이라는 대비를 담았는가. 벤치·가로등의 예를 함께 적으면 더 좋다.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이름이 서로 비슷한 세 패러다임과, 그것을 다시 둘로 묶는 상위 범주가 겹쳐 나오는 회차입니다. '무엇이 무엇에 속하는가'를 표로 정리하지 않으면 선지가 뒤섞였을 때 걸립니다. 명칭만 바꿔치기한 선지를 잡아내는 것이 급소.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4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마이야르 반응 — 맛과 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과학·화학

설명형 · 조건과 결과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마이야르 반응 #아미노산 #멜라노이딘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요리의 좋은 맛을 내는 조리 과정에서는 수많은 분자를 만들어내는 화학반응이 일어난다. 많은 화학반응 중 가장 돋보이는 화학반응은 '마이야르 반응'이다. 마이야르 반응은 온도가 약 섭씨 140도에 도달할 때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온도에서는 당 분자가 단백질을 이루는 요소들 중 하나인 아미노산과 반응한다. 음식에 들어 있는 당 분자들은 흔히 서로 결합하여 둘씩 짝을 이루거나 긴 사슬 구조를 만든다. 마찬가지로 단백질도 수백 개의 아미노산이 서로 연결된 긴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 마이야르 반응은 그 긴 사슬 끝에 있는 당이 다른 사슬 끝에 있는 아미노산과 만나 반응하며 시작된다. 당과 아미노산이 만나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겨나며, 반응한 화학물질은 자연스럽게 재정렬된다. 초기 반응에 관여한 아미노산과 당의 특성에 따라 다음에 일어날 일이 달라진다. 마이야르 반응에 관여할 수 있는 당은 적어도 6가지이며, 아미노산은 20가지가 넘는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생성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천차만별이다. 또 주변의 산도와 온도, 수분의 양에 따라서도 반응이 달라지는데, 여러 조건에 따라 반응 속도뿐만 아니라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화학물질이 달라진다.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분자 중 일부는 사람이 섭취했을 때 흥미로운 맛을 낸다. 예를 들면 포도당이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시스테인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아크릴피리딜은 크래커와 유사한 맛을 내고,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아르기닌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아세틸피롤린은 팝콘향을 낸다. 여기에 더해 갈색빛을 띠는 멜라노이딘 계열 분자들도 생성되는데, 이들은 음식이 갈색을 띠게 만든다.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 여러 맛 분자들뿐 아니라, 발암물질의 하나인 아세틸아미드와 같은 분자들도 소량이나마 생성된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21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6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반응의 조건 → 반응의 기제 → 변수와 산물**

조건 온도가 약 섭씨 _____ 도에 이르면 당 분자가 아미노산과 반응하기 시작한다

▼

기제 긴 사슬 끝의 당이 다른 사슬 끝의 _____ 과 만나 새 화학물질이 생기고 재정렬된다

▼

변수 당 6가지 이상 × 아미노산 20가지 이상, 여기에 산도·온도· _____ 까지 결과를 바꾼다

▼

산물 크래커 맛(아크릴피리딜)·팝콘향(아세틸피롤린)·갈색(멜라노이딘)과 함께 _____ 도 소량 생성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재정렬**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약 섭씨 140도에서 포도당과 단백질 사슬 끝에 있는 아미노산이 반응하면 팝콘향을 내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
② 마이야르 반응으로 생성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아미노산과 당의 종류보다는 주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③ 아크릴피리딜은 당 분자의 사슬 구조 끝에 있는 포도당과 아르기닌이 반응함으로써 생성된다.
④ 멜라노이딘 계열 분자는 요리의 색을 결정할 뿐, 암을 유발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
⑤ 마이야르 반응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물질의 양은 반응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4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① — 둘째 단락에서 포도당이 아르기닌과 반응하면 팝콘향을 내는 아세틸피롤린이 생성된다고 했고,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의 한 종류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첫째 단락에서 마이야르 반응은 약 섭씨 140도에서 시작되며 사슬 끝의 당이 사슬 끝의 아미노산과 만나 일어난다고 했다. 두 진술을 합치면 ①은 글에서 알 수 있다. 오답: ②당과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생성물이 천차만별이라고 먼저 말한 뒤 주변 조건도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을 뿐, 어느 쪽이 더 결정적인지는 비교하지 않았다. ③아크릴피리딜은 포도당과 시스테인의 반응 산물이다. 아르기닌과의 반응 산물은 아세틸피롤린이다. ④멜라노이딘이 발암과 무관하다는 서술은 글에 없다. 발암물질로 언급된 것은 아세틸아미드이며, 멜라노이딘의 발암성 여부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⑤발암물질이 소량 생성된다는 서술만 있을 뿐, 그 양이 반응 속도로 결정된다는 말은 없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마이야르 반응의 조건과 기제(~"재정렬된다.") ② 반응을 좌우하는 변수와 생성물(~"생성된다.") **2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조건: (140) / 기제: (아미노산) / 변수: (수분의 양) / 산물: (발암물질 아세틸아미드)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재정렬' = 반응으로 생긴 물질의 원자 배열이 저절로 다시 정돈되는 일. 채점 포인트: '새로 생긴 뒤 스스로 구조가 바뀐다'는 두 단계를 담았는가.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낯선 물질 이름이 쏟아지는 과학 지문에서, 이름을 외우는 대신 '무엇과 무엇이 만나 무엇이 되는가'의 짝만 붙잡는 회차입니다. 짝을 한 칸씩 밀어 놓은 ③번 같은 선지가 급소. 글이 말하지 않은 것(④·⑤)과 말한 것을 구분하세요.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5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발언과 침묵 — 조직 구성원은 왜 입을 다무는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사회·조직행동

설명형 · 유형 분류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묵종적 침묵 #방어적 침묵 #친사회적 침묵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조직 구성원의 발언은 조직과 구성원 양측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구성원들은 발언을 함으로써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 직무 스트레스가 줄고 조직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동시에 발언은 발언자의 조직 내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다양한 보복을 불러올 우려가 없지 않다. 한편 침묵은 조직의 발전 기회를 놓치게 하거나 조직을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 자신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침묵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고, 관련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정신건강과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성원들은 조직에서 우려되는 이슈들을 인지하였을 때, 이를 발언으로 표출할지 아니면 침묵으로 표출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해당 조직의 문화 아래에서 보복과 관련한 안전도와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침묵의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묵종적 침묵은 조직의 부정적 이슈 등과 관련된 정보나 의견 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알리거나 표출할 행동 유인이 없어 표출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침묵은 문제 있는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를 상실한 체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방관과 유사하다. 묵종적 침묵은 발언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조직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이다. 방어적 침묵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을 향한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조직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나 의견을 억누르는 적극적인 성격의 행위를 가리킨다. 기존에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침묵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도 방어적 침묵의 행동 유인으로 포함하여 보기 때문에 자기보신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친사회적 침묵은 조직이나 다른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조직과 관련된 부정적 정보나 의견 등을 표출하지 않고 억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한 이타주의적인 침묵을 가리킨다. 이는 본인의 사회적 관계를 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철저하게 '나'를 배제한 판단 아래에서 이뤄지는 행위이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21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9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발언과 침묵의 효과 → 선택의 기준 → 침묵의 세 유형**

효과 발언은 통제감을 주지만 보복의 우려가 있고, 침묵은 구성원의 _____ 에 악영향을 준다

▼

기준 보복과 관련한 _____ 와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 발언과 침묵을 택한다

▼

유형 1·2 행동 유인이 없어 체념하는 _____ 침묵 / 자신을 지키려는 자기보신적 방어적 침묵

▼

유형 3 조직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나'를 배제한 채 억제하는 _____ 침묵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자기보신적**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① 구성원들의 발언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정도가 커질수록, 조직의 묵종적 침묵은 감소할 것이다.
② 발언의 영향으로 자신의 안전이 걱정되어 침묵하는 경우는 방어적 침묵에 해당한다.
③ 발언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침묵하는 경우는 묵종적 침묵에 해당한다.
④ 발언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경우, 조직의 친사회적 침묵은 감소할 것이다.
⑤ 발언의 안전도와 실효성이 낮은 조직일수록 구성원의 건강은 악화될 수 있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5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④ — 추론할 수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친사회적 침묵은 조직이나 다른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나오며, 본인의 사회적 관계를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철저히 '나'를 배제한 판단이라고 했다. 익명성 보장은 발언자 자신의 안전을 높이는 조치이므로 방어적 침묵을 줄일 근거는 되어도, '나'를 배제한 이타적 동기에서 나오는 친사회적 침묵이 줄어들 것이라고는 추론할 수 없다. 오답: ①묵종적 침묵은 발언해도 소용없으리라는 불신에서 나오므로, 발언이 실제로 반영되면 줄어들 것이다. ②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억제는 방어적 침묵의 정의 그대로다. ③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체념은 묵종적 침묵에 해당한다. ⑤침묵은 정신건강과 신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안전도와 실효성이 낮으면 침묵이 늘어날 것이므로 건강 악화를 추론할 수 있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발언과 침묵의 양면적 효과 및 선택 기준(~"판단한다.") ② 묵종적 침묵(~"행위이다.") ③ 방어적 침묵(~"할 수 있다.") ④ 친사회적 침묵(~"행위이다.") **4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효과: (정신건강과 신체) / 기준: (안전도) / 유형 1·2: (묵종적) / 유형 3: (친사회적)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자기보신적' = 자기 자리와 이익을 지키려는 계산에서 나온. 채점 포인트: '몸을 사린다'는 부정적 뉘앙스와 '추가 이익까지 노린다'는 범위를 함께 담았는가.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세 유형의 침묵을 '동기'라는 하나의 잣대로 갈라 읽는 회차입니다. 특히 친사회적 침묵의 '나를 배제한다'는 단서가 ④번을 걸러내는 열쇠입니다. 부정 발문('추론할 수 없는')을 놓치지 않는 것도 급소.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6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조선의 진휼 — 누구에게 곡식을 줄 것인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인문·역사제도

설명형 · 다단계 분류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진제 #공진·사진·구급 #상중하 등급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조선 왕조는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을 보살피기 위한 진휼 사업에 힘썼다. 진휼의 방법에는 무상으로 곡식을 지급하는 진제와 이자를 받고 유상으로 곡식을 대여해 주는 환곡이 있었다. 18세기 후반 잦은 흉년으로 백성들을 구제할 필요성이 높아지자, 조선 왕조는 이전보다 진제를 체계화하여 공진, 사진, 구급으로 구분해 실시하였다. 공진은 국가가 비축해 놓은 관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재해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사진은 관곡을 사용하지 않고 지방 수령이 직접 마련한 자비곡이나 부유한 백성으로부터 기부받은 곡식으로 실시하는 것이었다. 사진은 그 실시 여부를 수령이 재량으로 결정하되 공진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구급은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운 백성을 긴급 구제하는 것으로 수령의 자비곡으로 충당하였다. 진제의 실시에 있어 대상자 선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대상자를 선정함에 앞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향임이나 감고에게 백성들의 토지 소유 여부, 생활 수준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를 하면서 본래 가계가 넉넉한 사람은 초실, 경작 규모나 경제 형편과 관계없이 금년에 이앙을 마친 사람은 작농, 농사 이외의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자활, 지극히 가난한 사람은 빈궁, 구걸로 연명하는 사람은 구걸로 구별해 이 중 하나로 기록하였다. 빈궁이나 구걸로 기록되는 사람이라도 형제나 친척 중에 초실이 있으면 그들의 거주지와 인적사항을 함께 기록하였다. 이러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상、중、하 3등급으로 백성을 구분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상, 환곡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중, 구걸로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무상으로 지급되는 곡식 없이는 목숨 보전도 힘든 사람을 하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하로 분류된 사람들이 진제의 대상자가 되었으며, 그 안에서 다시 굶주림의 정도에 따라 지급 시기를 구분하여 곡식을 지급하였다. 지급되는 곡식의 양은, 장년 남자는 10일에 쌀 5되, 노인 남녀와 장년의 여자는 10일에 쌀 4되, 어린아이는 10일에 쌀 3되였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21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21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제도 개관 → 세 갈래 진제 → 사전 조사 → 최종 선정**

개관 진휼은 무상 지급인 진제와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_____ 으로 나뉜다

▼

갈래 관곡을 쓰는 공진 / 수령의 자비곡·기부곡으로 하는 사진 / 긴급 구제인 _____

▼

조사 향임·감고가 초실·작농·자활·빈궁· _____ 의 다섯 갈래로 형편을 기록한다

▼

선정 상·중·하로 나누어 _____ 로 분류된 사람만 대상이 되고, 굶주림의 정도로 시기를 나눈다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자비곡**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진제 대상자의 선정 과정에서 초실과 자활은 3등급 중에서 상으로 분류되었다.
② 지방 수령이 자신의 판단으로 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곡을 지급하지 않았다.
③ 조사하는 해에 이앙을 마친 농민이 지극히 가난한 소작농이면 빈궁으로 기록되었다.
④ 진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굶주림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 이른 시기에 더 많은 곡식을 지급받았다.
⑤ 자력으로 생계를 전혀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친척 중에 초실이 있으면 진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6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② — 둘째 단락에서 사진은 관곡을 사용하지 않고 수령이 직접 마련한 자비곡이나 기부받은 곡식으로 실시하며, 실시 여부를 수령이 재량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구급 역시 수령의 자비곡으로 충당한다. 반면 공진은 국가가 비축한 관곡을 쓰되 재해가 극심한 지역에 한정해 국가가 실시한다. 따라서 수령이 자신의 판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곡이 지급되지 않는다. 오답: ①초실·자활은 사전 조사 단계의 기록 항목이고, 상·중·하는 그 뒤의 최종 구분이다. 두 단계가 그대로 대응한다는 서술은 없다. ③작농은 '경작 규모나 경제 형편과 관계없이' 그해 이앙을 마친 사람을 가리키므로, 이앙을 마쳤다면 가난하더라도 작농으로 기록된다. ④굶주림의 정도에 따라 나눈 것은 지급 '시기'이지 지급량이 아니다. 지급량은 나이와 성별로 정해졌다. ⑤빈궁·구걸로 기록된 사람에게 초실인 친척이 있으면 그 거주지와 인적사항을 함께 기록했을 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서술은 없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진휼과 진제의 체계화(~"실시하였다.") ② 공진·사진·구급의 구분(~"충당하였다.") ③ 사전 조사와 다섯 갈래 기록(~"기록하였다.") ④ 상·중·하 선정과 지급(~"3되였다.") **4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개관: (환곡) / 갈래: (구급) / 조사: (구걸) / 선정: (하)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자비곡' = 수령이 관청의 곡식이 아니라 스스로 마련해 내놓은 곡식. 채점 포인트: '관곡이 아니다'라는 대비를 담았는가. 한자 '자(自)'가 열쇠다.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분류가 세 겹으로 겹쳐 있는 회차입니다. 재원(관곡/자비곡), 조사 기록(다섯 갈래), 최종 등급(상중하)을 각각 다른 층으로 구분해 두지 않으면 ①번처럼 층을 뒤섞은 선지에 걸립니다. '시기'와 '양'을 바꿔치기한 ④번도 급소.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7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 — 소액주주는 이사를 뽑을 수 있는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사회·회사법

설명형 · 제도 비교와 계산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1주 1의결권 #집중투표제 #옵트아웃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1주 1의결권 원칙이 적용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다. 예를 들어 5%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전체 의결권 중에서 5%의 의결권을 갖는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각 이사 후보자별 의결이 별도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2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 후보가 있다면, 각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세 건의 안건을 올려 각각 의결한다. 즉, 총 세 번의 의결 후 찬성 수를 가장 많이 얻은 2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다. 이를 단순투표제라 한다. 단순투표제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주주는 모든 이사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되고, 그럴 경우 50%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한 명도 이사로 선임하지 못하게 된다. 집중투표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이다. 이는 복수의 이사를 한 건의 의결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단순투표제와 달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각 후보별로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회사의 발행주식이 100주이고 선임할 이사는 5인, 후보는 8인이라고 가정해 보자. 집중투표제를 시행한다면 25주를 가진 주주는 선임할 이사가 5인이기 때문에 총 125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75주를 가진 지배주주는 총 375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각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하여 배분할 수 있다. 125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자신이 원하는 이사 후보 1인에게 125표를 집중 투표하여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최종적으로 5인의 이사는 찬성 수를 많이 얻은 순서에 따라 선임된다.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옵트아웃 방식이라고 한다. 정관에서 명문으로 규정해야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옵트인 방식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체 상장회사의 90% 이상은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을 가지고 있어 집중투표제의 활용이 미미한 상황이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21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23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원칙 확인 → 단순투표제의 한계 → 집중투표제의 해법 → 현실의 제약**

원칙 주주는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다 — _____ 원칙

▼

한계 후보별로 따로 의결하므로, 50%를 넘는 주주가 _____ 이사를 원하는 대로 선임한다

▼

해법 복수의 이사를 한 건으로 의결하여, 의결권을 원하는 후보에게 _____ 할 수 있게 한다

▼

제약 정관에 배제 규정이 없어야 청구 가능한 _____ 방식이지만, 상장회사의 90% 이상이 배제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옵트아웃**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한 안건에 대해 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모두 1주당 의결권의 수는 그 의결로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하다.
② 집중투표제에서 대주주는 한 건의 의결로 선임될 이사의 수가 가능한 한 많아지기를 원할 것이다.
③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소액주주는 본인이 원하는 최소 1인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정관에 집중투표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주주는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단순투표제에서는 전체 의결권의 과반수를 얻어야만 이사로 선임된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7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① — 집중투표제에서 100주 중 25주를 가진 주주는 선임할 이사가 5인이므로 125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1주당 5표, 곧 선임할 이사의 수와 같다. 단순투표제에서는 후보 한 사람마다 별도의 안건으로 의결하므로 한 안건에서 선임되는 이사는 1인이고,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1주당 1표를 행사한다. 이 역시 그 의결로 선임할 이사의 수와 같다. 따라서 두 제도 모두 ①이 성립한다. 오답: ②집중투표제에서 한 건으로 뽑는 이사가 많아질수록 소액주주도 표를 몰아줄 여지가 커지므로, 대주주에게 유리하지 않다. ③25주 주주가 125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도 375표를 가진 지배주주가 표를 나누어 배분하면 선임을 막을 수 있다. 글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만 했다. ④집중투표제는 옵트아웃 방식이므로 정관에 배제 규정이 '없어야' 청구할 수 있다. 규정이 없는 경우가 곧 청구 가능한 경우다. ⑤단순투표제에서는 찬성 수를 많이 얻은 순으로 선임될 뿐, 과반수 요건은 언급되지 않았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1주 1의결권 원칙(~"의결권을 갖는다.") ② 단순투표제와 그 한계(~"못하게 된다.") ③ 집중투표제의 방식(~"선임된다.") ④ 옵트아웃 방식과 현실(~"상황이다.") **4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원칙: (1주 1의결권) / 한계: (모든) / 해법: (집중하여 배분) / 제약: (옵트아웃)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옵트아웃' =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빼겠다고 정해 두어야 비로소 빠지는 방식. 채점 포인트: 옵트인(정해야 적용)과의 반대 관계를 담았는가.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숫자로 직접 따져 보아야 답이 보이는 회차입니다. 예시의 100주·5인·8후보를 종이에 옮겨 놓고 표를 배분해 보는 것이 급소. '높일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꾼 ③번처럼 확실성의 강도를 올린 선지를 경계하세요.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8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ILO 노동기준 협약의 세 갈래와 우리나라의 비준 현황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사회·국제법

설명형 · 범주와 대조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핵심협약 #거버넌스협약 #비준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준에 관한 협약들은 그 중요성과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핵심협약, 거버넌스협약, 일반협약으로 나뉜다. 핵심협약은 1998년의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 원칙들과 권리에 관한 선언'에서 열거한 4개 원칙인 결사ㆍ자유원칙, 강제노동 금지원칙, 아동노동 금지원칙, 차별 금지원칙과 관련된 협약들을 말한다. ILO는 각국이 비준한 핵심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감시ㆍ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회원국에게는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관한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거버넌스협약은 노동정책 결정과 노동기준 집행 등 거버넌스와 관련된 협약으로 2008년의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정의에 관한 선언'에서 열거한 근로감독 협약, 고용정책 협약, 노사정 협의 협약 등이 있다. ILO는 미비준한 거버넌스협약에 대해 회원국에 별도의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회원국들과 외교적 협의를 통해 거버넌스협약 비준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일반협약은 핵심협약과 거버넌스협약을 제외한 ILO의 노동기준에 관한 모든 협약을 가리키는데, 일반협약은 핵심협약과 거버넌스협약의 세부 주제별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핵심협약에서 차별 금지원칙을 선언하거나 그 대강을 규정하면 일반협약에서는 각 산업별, 직역별에서의 근로시간 관련 구체적 차별 금지 및 그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반협약은 ILO 내 다른 협약에 대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에 가입한 이후 순차적으로 ILO 노동기준에 관한 협약들을 비준하고 있다. 최근까지 아동노동 금지원칙 및 차별 금지원칙 관련 협약을 비준하였고 2021년 2월에는 결사ㆍ자유원칙 관련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거버넌스협약은 근로감독 협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준되었고, 비준된 핵심협약과 관련된 일반협약은 대부분 비준되었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21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24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분류 제시 → 세 범주의 성격 → 우리나라의 현황 대조**

분류 ILO 협약은 중요성과 특성에 따라 핵심·거버넌스·_____ 협약으로 나뉜다

▼

핵심 4개 원칙 관련 협약. 미비준국에는 미비준 이유와 전망에 관한 _____ 제출 의무

▼

거버넌스 근로감독·고용정책·노사정 협의 협약 등. 미비준 시 별도 보고 의무 대신 _____ 협의

▼

현황 아동·차별 원칙 비준, _____ 원칙은 절차 진행 중, 거버넌스는 근로감독만 미비준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비준**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우리나라는 고용정책 협약 및 그 세부 주제에 관한 일반협약을 모두 비준하였다.

② 우리나라는 매년 ILO에 강제노동 금지원칙에 관한 협약의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리나라에서 2021년 2월에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협약은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정의에 관한 선언에 열거되어 있다.

④ ILO의 2008년 선언문에 포함된 근로감독 협약은 ILO의 다른 협약에 대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⑤ ILO는 노사정 협의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8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② — 핵심협약은 결사·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의 네 원칙과 관련된 협약이고, ILO는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관한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나라는 아동노동 금지와 차별 금지 관련 협약을 비준했고 결사·자유 관련 협약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으므로, 강제노동 금지 원칙 관련 협약은 아직 비준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에 대해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답: ①고용정책 협약은 거버넌스협약으로 비준되었지만, 그 세부 주제에 관한 일반협약이 모두 비준되었다는 서술은 없다. 대부분 비준되었다고 한 것은 '핵심협약과 관련된' 일반협약이다. ③2021년 2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결사·자유원칙 관련 협약으로, 이는 1998년 선언에 열거된 핵심협약이다. 2008년 선언은 거버넌스협약에 관한 것이다. ④다른 협약에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성은 일반협약의 것이며, 근로감독 협약은 거버넌스협약이다. ⑤연례 보고서 요구는 핵심협약 미비준국에 대한 것이고, 노사정 협의 협약은 거버넌스협약이어서 별도 보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세 범주의 분류(~"나뉜다.") ② 핵심협약(~"부과하고 있다.") ③ 거버넌스협약(~"노력하고 있다.") ④ 일반협약(~"특성을 지닌다.") ⑤ 우리나라의 비준 현황(~"비준되었다.") **4~5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분류: (일반) / 핵심: (연례 보고서) / 거버넌스: (외교적) / 현황: (결사·자유)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비준' = 이미 서명한 조약을 나라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효력을 갖게 하는 절차. 채점 포인트: '가입'이나 '서명'과 구분되는 '최종 확정'이라는 뜻을 담았는가.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세 범주와 네 원칙,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준 여부가 격자처럼 교차하는 회차입니다. 표를 그려 두 축을 채우지 않으면 풀 수 없습니다. 범주를 한 칸 옮겨 놓은 선지(③·④·⑤)를 잡아내는 것이 급소.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09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동의와 기만 — 의사는 환자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인문·의료윤리

논증형 · 원리의 충돌과 해소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자율성 존중 원리 #악행 금지의 원리 #조종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의사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른 말로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복지에 영향을 끼치는 처방을 하는 것은 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단순히 동의를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환자가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 즉 치료에 따르는 위험과 다른 치료법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치료를 허락한 환자의 결정은 무지로 인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동의의 의무는 의사가 환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기만 금지 의무의 연장선에 있다. 둘 다,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치료에 관해 스스로가 결정할 기회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자율성 존중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수 세기 동안, 심지어 20세기 초까지도 의사가 때로는 환자를 속여도 된다고 여겼다. 환자의 복지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행하면 안 된다는 악행 금지의 원리에 근거해서, 환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환자의 복지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만이 정당화되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제로 '의사와 환자 상호교류 규제법'은 의사의 기만 사례를 금지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환자가 진실 때문에 자신의 자율성이 침해되거나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진실 말하기에 관한 한, 악행 금지의 원리가 자율성 존중 원리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율성 존중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만을 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컨대 의사가 환자를 실제로 속이지는 않지만 환자가 특정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정보 제공을 보류하거나 직접적 관련성이 작은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다. 이처럼 의사가 정보 제공을 조종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의사가 관련된 정보를 환자에게 모두 밝히면 환자는 조종된 결정이 아닌 자신의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환자의 자율성은 존중될 것이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21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25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원칙 제시 → 과거의 정당화와 그 철회 → 남은 문제**

원칙 동의의 의무와 기만 금지 의무는 모두 _____ 존중 원리에 기반을 둔다

▼

과거 진실이 환자의 복지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_____ 금지의 원리에 기대 기만이 정당화되었다

▼

현재 진실이 해를 입힌다고 보지 않으므로 두 원리는 서로 _____ 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

남은 문제 정보를 보류하거나 관련성 낮은 정보를 과하게 주는 _____ 역시 자율성 침해다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조종**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① 환자의 동의는 치료를 하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이다.
② 악행 금지의 원리가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때가 있었다.
③ 기만 금지 의무와 동의의 의무는 동일한 원리에 기반을 둔다.
④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환자의 자율성은 더 존중된다.
⑤ 의사가 복지를 위해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오늘날에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09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④ — 알 수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셋째 단락은 관련 정보를 보류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적 관련성이 작은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정보 제공을 조종하는 것이며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글이 요구하는 것은 '관련된 정보를 모두 밝히는 것'이지 정보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양이 많을수록 자율성이 더 존중된다는 진술은 글에서 알 수 없고, 오히려 반대된다. 오답: ①환자의 동의 없이 복지에 영향을 끼치는 처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동의는 필요조건이다. ②과거에는 악행 금지의 원리에 근거해 기만이 정당화되었고, 기만은 자율성 존중과 충돌하므로 자율성이 침해된 때가 있었다. ③동의의 의무는 기만 금지 의무의 연장선에 있고 둘 다 자율성 존중 원리에 기반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⑤오늘날에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관련 법이 기만을 금지한다고 했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동의의 의무와 그 근거(~"기반을 두고 있다.") ② 기만의 정당화와 철회(~"생각한다.") ③ 조종이라는 남은 문제(~"존중될 것이다.") **3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원칙: (자율성) / 과거: (악행) / 현재: (충돌) / 남은 문제: (조종)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조종' = 속이지는 않으면서 정보를 고르거나 늘려 상대의 결정을 원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일. 채점 포인트: '거짓말은 아니지만 자율을 해친다'는 핵심을 담았는가.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두 윤리 원리가 충돌하다가 화해하고, 그럼에도 남는 문제가 제시되는 3단 구성입니다. 부정 발문이라 '맞는 말'을 고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보의 '양'과 '관련성'을 바꿔치기한 ④번을 잡아내는 것이 급소.

문식성 독해력 훈련 — 제10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확장판 | 푄 현상 — 산을 넘은 바람은 왜 뜨겁고 건조해지는가

이름 _____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소요 시간 _____분

지문 유형

과학·지구과학

설명형 · 과정 추론

정보 밀도	논리 복잡도	배경지식
●●●●○	●●●●●	●●●●○

오늘의 훈련 흐름 — 7개 관문

STEP 0 예측 › ① 단락 나누기 › ② 요지 정리 › ③ 문제 출제 › ④ 구조 채우기 › ⑤ 문항 해결 › ★ 읽기 일지

0 예측하기 PRE-READING

뇌를 켜고 읽기 시작하는 스위치 — 지문을 읽기 전, 키워드로 글의 방향을 예측하세요.

핵심 키워드

#기온감률 #이슬점 #높새바람

나의 예측 (한 문장)

_____

읽기 기호 — 다음 장부터 이 기호를 쓰며 읽으세요

○	△	×	?	／
필자의 주장	주장의 근거	반론·반박	모르는 단어	단락 나누기

기호를 쓰며 읽는 것만으로 집중 읽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읽은 지문은 훈련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1 지문 단락 나누기 SEGMENTING

의미가 바뀌는 곳에 ／, 단락 앞에 ①②③… 번호를. **주황 표지**는 구조 단서.

1회독 _____
단락 ____개 · ? ____개

푄 현상은 바람이 높은 산을 넘을 때 고온 건조하게 변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기압이 낮아져 공기가 팽창하는 단열팽창 현상 때문에 공기 온도가 내려간다. 공기가 상승할 때 고도에 따른 온도 하강률을 기온감률이라 한다. 공기는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공기가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은 온도가 내려갈수록 줄어들고, 공기의 수증기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온도인 이슬점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는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생성되거나 비가 내리게 된다. 공기의 수증기가 포화상태일 경우에는 습윤 기온감률이 적용되고, 불포화상태일 경우에는 건조 기온감률이 적용되는데, 건조 기온감률은 습윤 기온감률에 비해 고도 차이에 따라 온도가 더 크게 변한다. 이러한 기온감률의 차이 때문에 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령, 높은 산이 있는 지역의 해수면 고도에서부터 어떤 공기 덩어리가 이 산을 넘는다고 할 때, 이 공기의 온도는 건조 기온감률에 따라 내려가다가 공기가 일정 높이까지 상승하여 온도가 이슬점 온도에 도달한 후에는 공기 내 수증기가 포화하면 습윤 기온감률에 따라 온도가 내려간다. 공기의 상승 과정에서 공기 속 수증기는 구름을 형성하거나 비를 내리며 소모되고, 이는 산 정상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 이 공기가 산을 넘어 건너편 사면을 타고 하강할 때는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 기온감률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산을 넘은 공기가 다시 해수면 고도에 도달하면 산을 넘기 전보다 더 뜨겁고 건조해진다. 이 건조한 공기가 푄 현상의 결과물이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푄 현상으로 높새바람이 있다. 이는 강원도 영동지방에 부는 북동풍과 같은 동풍류의 바람에 의해 푄 현상이 일어나 영서지방에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부는 것을 의미한다. 늦은 봄에서 초여름에 한랭 다습한 오호츠크해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을 때 푄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 높새바람의 고온 건조한 성질은 영서지방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산불을 일으키기도 한다.

출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 2021년도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가책형) 문 27

2 단락별 요지 정리 SUMMARIZING

각 단락을 '~는 ~다' 한 문장으로. 지문의 문장을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세요.

1단계에서 나눈 단락 순서대로 요지를 적으세요. **나눈 단락 수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

7

3 이해 바탕 문제 출제 QUESTIONING

출제자가 되어 보면 글의 급소가 보입니다. 오답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친구에게 낼 선다형 문제를 2개 만드세요. 발문을 쓰고, 선지 ①~⑤를 채운 뒤 정답에 ○ 표시하세요.

출제 1 (내용 확인형 — 글에 답이 있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출제 2 (비판·적용형 — 글을 넘어서는)

발문

선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 _____ | 근거 단락 _____

4 맥락적 구조화 STRUCTURING

생각의 뼈대를 발라내는 단계입니다. 빈칸을 채워 글쓴이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세요.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구조 유형 · **원인 개념 → 상승과 하강 과정 → 우리나라의 사례**

개념 건조 기온감률이 습윤 기온감률보다 고도 차이에 따른 온도 변화가 더 _____

▼

상승 건조 기온감률로 내려가다 _____ 온도에 도달하면 습윤 기온감률로 바뀐다

▼

하강 수증기를 잃어 건조해진 공기가 건조 기온감률로 데워지며 내려와, 넘기 전보다 _____

▼

사례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북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영서지방에 부는 _____

4-1 어휘의 맥락적 재정의 — 사전 말고, 이 글 안에서의 의미로

지문에서 사용된 **기온감률**은(는) 문맥상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써 보세요.

나의 재정의

5 확인 문항 해결 SOLVING

위 구조도를 바탕으로 푸세요. 누가 한 말인지(주장인지 비판인지)를 확인하며 접근합니다.

①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① 공기가 상승하여 공기의 온도가 이슬점 온도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공기가 상승할수록 공기 내 수증기량은 줄어든다.
② 공기가 상승할 때 공기의 온도가 이슬점 온도에 도달하는 고도는 공기 내 수증기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③ 높새바람을 따라 이동한 공기 덩어리가 지닌 수증기량은 이동하기 전보다 증가한다.
④ 공기 내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습윤 기온감률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고도가 높아진다.
⑤ 동일 고도에서 공기의 온도는 공기가 상승할 때가 하강할 때보다 높다.

3분 읽기 일지 REFLECTION

먼저 아래 일지를 충분히 채운 뒤,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세요.

① STEP 0의 예측은 맞았나요? 글의 결론은 내 예상과 어디가 달랐나요?

② 어느 단계에서 가장 흔들렸나요? (단락 / 요지 / 출제 / 구조 / 문항) — 이유는?

③ 삐딱하게 바라보기 — 글쓴이의 결론에 딴지를 하나 걸어본다면?

④ 다시 읽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10회 정답 · 해설 — 정답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1. 정답 ① — 공기가 상승해 이슬점 온도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되고, 그 이후로는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을 만들거나 비로 내리며 소모된다. 둘째 단락은 이 소모가 산 정상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고 밝힌다. 따라서 이슬점 도달 이후 더 상승할수록 공기 안에 남은 수증기량은 줄어든다. 오답: ②공기가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은 온도가 내려갈수록 줄어들므로, 원래 수증기가 많은 공기는 더 낮은 고도에서 이슬점에 도달한다. 수증기량과 무관하게 일정할 수 없다. ③높새바람은 산을 넘으며 수증기를 잃고 고온 건조해진 바람이므로 수증기량은 오히려 감소한다. ④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에 더 일찍, 곧 더 낮은 고도에서 도달하므로 습윤 기온감률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고도는 낮아진다. ⑤같은 고도를 비교하면 상승할 때보다 하강할 때가 더 뜨겁다. 산을 넘은 공기가 해수면 고도에서 넘기 전보다 뜨거워진다는 결론이 그 근거다.

단락 나누기 예시 — ① 기온감률의 차이와 푄 현상의 원인(~"발생하는 것이다.") ② 상승과 하강의 과정(~"결과물이다.") ③ 높새바람이라는 사례(~"일으키기도 한다.") **3개면 정상 범위.**

4단계 구조 빈칸 정답 — 개념: (크다) / 상승: (이슬점) / 하강: (더 뜨겁고 건조해진다) / 사례: (높새바람) 표현이 조금 달라도 같은 개념을 짚었다면 정답입니다.

4-1 어휘 재정의 예시 — '기온감률' = 공기가 높이 올라갈 때 고도에 따라 온도가 떨어지는 비율. 채점 포인트: '높이당 온도 변화의 정도'라는 뜻을 담았는가. '감(減)'이 줄어듦을 가리킨다.

이 회차의 훈련 목표 — 글에 그림이 없어도 머릿속에 산을 하나 그려 두어야 풀리는 회차입니다.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의 감률이 다르다는 한 가지 사실에서 다섯 선지가 갈라져 나옵니다. '높아진다/낮아진다'의 방향을 뒤집은 ④번이 급소.